

책은 나의 무기!

새로운 공주의 탄생!
나는 내가 지키고, 왕국도 내가 지킨다



어떤 내용인가요?

옛날 옛적에 아주 똑똑한 공주가 살았습니다. 공주는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딸에게 자꾸만 ‘공주다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책 좀 그만 읽고 기사를 만나거나 집안일을 배우라면서요. 하지만 똑똑한 공주는 읽을 책만 있다면 아무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공주를 지켜 주냐고요? 바로 공주 자신이지요!

『책은 나의 무기!』는 백마 탄 왕자도, 곁을 지키는 기사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 나가는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공주라면, 또 여자라면 무릇 이래야 한다는 편견에 맞서 책을 무기로 꺼내 든 공주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기본 정보



엘로디 상보 글,
트리스탕 지용 그림,
박선주 옮김
14,000원, 40쪽
2024년 7월 15일



국내도서 > 유아 > 유아 그림책
국내도서 > 어린이 > 1-2학년
그림/동화책



#독서 #페미니즘 #세계여
성의날 #차별없는세상 #동
화새로읽기 #책,너의의미
#책벌레 #책덕후



1-2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2-2 국어 4. 인물의 마음
을 짐작해요

선생님 도움말

이 책은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린 옛날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되 과감하게 비틀니다. 답답한 드레스를 입고 구두를 흘리는 신데렐라와 달리 우리의 주인공 공주는 편한 옷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지요. 또 탑에 갇혀 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던 라퐁젤과 달리, 탑의 자기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도 마음이 내키면 자유롭게 밖을 나가 돌아다니고 옹니다. 공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낯선 이에게 입맞춤을 당하느니 그런 시도를 하려는 기사를 아예 잠들게 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백설 공주처럼 일곱 난쟁이의 집안일을 도맡는 대신 아예 살림 로봇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요. 이처럼 『책은 나의 무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공주는 없습니다. 자연학, 공학, 생태학, 의학, 문학, 역사 등 관련 서적을 두루 읽으며 익힌 지식으로 왕국의 평화를 지키는 멋진 공주만이 있을 뿐이지요. 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공부하여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당찬 공주의 이야기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목표 책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생각해 보아요!

표지를 보며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 책을 들고 있는 공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는 주로 어떤 모습인가요?



목표 인물의 속마음을 생각해 보아요!

공주는 자기를 찾아오는 기사들과 난쟁이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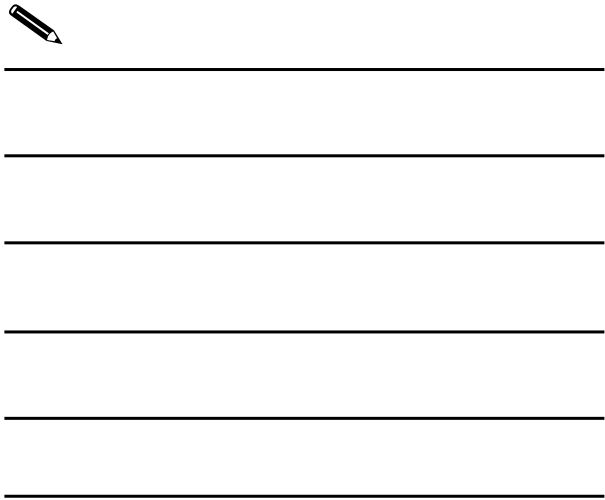
공주는 왜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걸까요?





목표 책과 삶을 연결 짓고, 나만의 이야기를 써 보아요!

공주는 왕국의 말썽쟁이 괴물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재미있게 읽었거나 감명 깊게 본 책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에게 그 책을 소개해 주세요.

